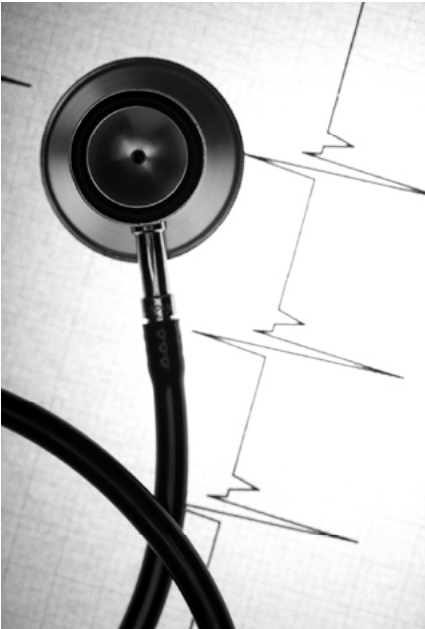


만물의 고유한 주파수

| 홀다 레게 클락 | 최종섭 옮김 |

홀다 클락은 무선전기원리에 근거하여 인체 질병의 원인인 미생물과 기생충의 고유 주파수를 발견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주파수발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인체에서 혈액검사로 찾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왜 전기 검사가 화학적 방법보다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을까요? 전기로 기생충을 죽인다는 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988년 저는 신체 장기를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음파, 엑스레이, 전산화단층촬영술(CAT) 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이용해서 장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조사나 추측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장기의 비정상적인 모양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발한 새로운 전기 기술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용해물질과 독소를 체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하며 저렴하고 빠르며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전기는 많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목록에 '신체 속의 물질에 대한 조사'라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선 전기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회로의 정전용량(capacitance)과 유도계수(inductance)를 매우 정밀하게 맞추어서 공명 주파수가 다른 곳에서 오는 방출 주파수와 같게 된다면 그 회로가 진동할 것입니다. 이 말은 증폭회로에 양(陽)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동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성기에서 '끼익' 소리가 날 때와 비슷합니다.

제가 사용한 외부회로는 음향발진기(audio oscillator)라고 부르는 것으로 쉽게 만들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신체는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신체와 음향발진기의 회로를 결합시키면 공명(resonance)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것이 검사대 회로의 어떤 것과 일치합니다. 검사대에 실험 샘플인 바이러스를 올려놓으면 공명소리를 듣고 몸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 기술자나 음악가라면 공명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끈기 있게 연습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s) 장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전기로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예민한 청각은 도움이 됩니다.

1988년 저는 눈가리개를 하고 피부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몇 분 내에 그 물건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맛을 보지 않고도 음식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피부나 혀에 있는 것들을 잘 감지합니다. 내부 장기에 적용해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완전한 발견의 세계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명을 일으키는 귀, 통증을 유발하는 눈,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위장 그리고 다른 수천 가지 질병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이라는 일상의 환희 뒤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라디오주파수 같은 상당한 고주파가 에너지원 없이도 내가 만든 회로를 통해 흐를 수 있을까?’ 저의 음향발전기는 1,000Hz일 뿐이었습니다. 무선주파수는 수십만 헤르츠입니다. 더군다나 이 현상은 직류(DC)만 발생시키고 주파수는 전혀

발생시킬 수 없는 구식 데마트론(dermatron)¹⁾으로 일어났습니다.

고주파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와야만 했습니다. 체계서 왔던 것일까요? 어리석은 소리!

그러나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그것이 빠져나와서 정사이즈의 콘덴서를 통해 땅속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피드백 진동이 멈출 것입니다. 이는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진동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엉터리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그래서 다른 검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회로를 통해 흐르는 무선 주파수(RF)가 정말 존재한다면 적절한 스냅방식의 초크로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검증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공명현상이라면 이 회로에 정전용량(capacitance)을 추가해서 공명이 소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유도계수(inductance)를 넣어서 공명이 돌아오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전과 유도의 관계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재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RF오실로스코프에서 RF를 볼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에너지 주파수가 아니라 고주파 에너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배경 잡음 수준 이상으로 그것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의 검증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회로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RF방사를 일으켰다면 외부 소스에서 나

1) 데마트론은 수십 년 전에 발명되었고, 폴(Voll) 박사에 의해 유명해졌습니다. 기존의 과학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은 다른 RF방사를 더해서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파수발생기로 1,000Hz를 더해 보았습니다. 공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섭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 몸이 1,000Hz에서 방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혹은 저의 1,000Hz 방사가 일치되어 상쇄된 것일까요? 저는 주파수를 1,000에서 10,000으로, 100,000으로, 1,000,000Hz로 점차 올려보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든 공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중단할 때가 되었죠. 그러나 주파수발생기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자, 그 주파수발생기는 2,000,000Hz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저는 1,000,000Hz까지만 올렸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 더 짧게 실험해보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800,000Hz까지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간섭현상은 없었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지금은 공명이 일어나고,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 몸의 대역폭(bandwidth)에 도달했던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1,562,000Hz에서 공명된 가장 낮은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서부터 2,000,000Hz(저의 주파수발생기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까지 제가 점검한 모든 주파수(약 2,000개)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1년 뒤 저는 더 좋은 주파수발생기를 사서 최상위 주파수 대역까지 조사했습니다. 1,562,000Hz와 9,457,000Hz 사이의 주파수는 모두 회로에 부가될 수 있었고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인체가 라디오 기자국같이 전기적으로 전파를 퍼뜨리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이 너무 광대하고 전압이 아주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출되거나 측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물은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Everything Has A Unique Frequency)

1989년은 바쁜 한해였습니다. 저는 다른 생물체의 대역폭을 찾아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파리, 딱정벌레, 거미, 벼룩, 개미의 대역폭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대역폭은 1,000,000에서 1,500,000Hz 사이였고, 바퀴벌레가 제가 검사한 곤충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곤충에게도 대역폭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았을 때와 똑같은 범위의 상한선 근처에서 훨씬 더 좁았지만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생명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생물이 공명하는 대역폭을 갖고 있다면, 사체를 현미경 슬라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물의 기생충 표본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정원으로의 소풍과 도살장으로의 전화도 그만둘 수 있는, 행운을 가져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큰 기생충이자 인류의 두통거리인 장내에 서식하는 장흡충(human intestinal fluke)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만나본 모든 암환자의 간에(장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죽은 장흡충의 성충은 434,000Hz쯤에 공명주파수가 있었습니다. 기생충의 레디아유충 슬라이드는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432,000Hz 쯤에서 공명을 일

으켰습니다.

죽은 생물도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개의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심지어 독소까지도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충 단계의 기생충에 감염되었고 그가 434,000Hz가 발생하는 주파수발생기를 쥐고 있다면 성충단계의 기생충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며칠 후에, 흡충을 제외하고 제가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살모넬라, 편모충, 헤르페스로 직접 저 자신에게 실험해 보았습니다. 3분 동안 처치한 후에 재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 장기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특정 주파수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죽었을까요? 아마 단지 마비되었거나 갑자기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증상도 즉시 없어졌습니다. 저의 헤르페스 상처는 더 이상 따끔거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방법일까요? 3주가 안되어서 저는 전기치료법의 한도에 관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주파수에서 3분 동안 5볼트의 전압만 필요했습니다. 기생충과 함께 사람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센 가정 전류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선별적 감전사(Selective Electrocutation)

20분 안에(6개의 다른 주파수에서 3분씩) 전 가족이 이 기생충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이 기생충을 죽인 후 몇 시간 안에 보편적인 암의 지표인 오토포스포 타이로신(orthophospho

사체 조각을 이용해서 세균, 바이러스 혹은 기생충의 공명 주파수를 찾으십시오.
이 주파수로 몸 안의 살아있는 침입자들을 처치하십시오.
몇 분 후면 그들은 더 이상 고유의 주파수를 방사하지 못합니다.

-tyrosine)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불치병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도 몇 시간 내에 바이러스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HIV에 대한 실험실 재검사는 음성(Negative)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병원균’을 확인하고 다음 방문 때까지 그것의 주파수를 찾지만 하면 대부분 환자의 통증은 곧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체에게서 어떤 고주파 에너지가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 같았습니다.

세균이나 기생충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만약 회충이나 장흡충 정도 크기의 벌레를 죽일 수 있다면 지렁이나 벼룩 등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더 큰 벌레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방사영역 중 가장 상단의 주파수에서 10분이면 그들은 마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몸의 대역폭(그들이 방사하는 주파수의 범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렁이는 상단과 하단에서 모두 대역폭이 손상되었습니다. 벼룩은 더 강건한 것 같았습니다. 약간만 손상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난 뒤에도 그들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고유한 대역폭에서 RF주파수로 제거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전압만 충분히 높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이려는 기생충은 인간의 고유 주파수와 겹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고유 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실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두 주파수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